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순차 매개효과

김정현, 윤성민*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The effect of Father's Self-esteem on Child's Social Skills :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Father-child Communication and Child's Self-esteem

Jung-Hyun Kim, Sung-Min Yoon*
Division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아버지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자녀의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4-6 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 24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고, 이후 SPSS 25.0 및 Process macro 4.2를 통해 상관분석 및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사회적 기술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둘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자녀의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존감의 매개효과가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자녀의 사회적 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순차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순차 매개효과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및 자녀의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한다. 본 연구는 어머니 대상의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그 수가 부족한 아버지 대상의 연구를 진행하여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을 밝혔고,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 발달에 관련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부모 상담 시에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에 관련된 개입이 유용함을 지지하는 근거를 제시했음에 그 함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steem of the father and child, father-child communication, and the child's social skills. A survey was conducted on 244 fathers with children in the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grades 4-6), and then correlation and mediating effect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25.0 and Process Macro 4.2.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father's self-esteem, the child's self-esteem, father-child communication, and the child's social skill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the father-child communication and the child's self-esteem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self-esteem and the child's social skills.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the father-child communication and the child's self-esteem were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self-esteem and the child's social skills. However,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self-esteem and the child's social skills. This study revealed the influence of fathers on their children by conducting a research study on fathers. Such studies are relatively fewer than studies on mothers. This study presented evidence to support the usefulness of interventions related to father-child communication in parent education programs or parent counseling related to children's self-esteem and social skills development.

Keywords : Self-esteem, Communication, Social Skills, Father-child,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Schoolchild

*Corresponding Author : Sung-Min Yoon(Hanyang Cyber University)

email: ysmpsy@hycu.ac.kr

Received October 24, 2023

Accepted January 5, 2024

Revised November 29, 2023

Published January 31, 2024

1. 서론

1.1 선행연구 및 연구 목적

가정은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접하는 환경이고, 자녀는 가정 속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 성격특성, 감정,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자존감), 가치관, 사회적응 기술 등을 학습하게 된다[1-5]. 이런 면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녀의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자존감(Self-esteem)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정적 측면(즉 느낌)으로 정의할 수 있다[6]. 이 자존감은 인간의 정신건강, 행복감, 대인관계, 심리·사회적응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3,7,8] 인간의 삶에 중요한 변인으로 여겨진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에서도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존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간 상호작용에서부터 시작되고, 이후 작은 성취나 칭찬, 성공 그리고 부모의 애정, 존중 등을 통해서 형성된다[2,6,9].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10]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2,4,11,12]. 이 예측은 부모-자녀 사이에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자녀의 자존감이 높아짐을 확인한논문들에 의해 뒷받침된다[13-15]. 그리고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선행요인 중에는 부모의 자존감을 들 수 있는데[16,17], 부모의 낮은 자존감이 그의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4,11]. 같은 맥락에서,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모델에서는 부모의 자존감이 자녀의 자존감으로 전수된다고 했고[11,18-24] 이 과정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이론과 연구 결과들도 존재한다[2,11,25,26].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의 자존감이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연속해서 자녀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세 변인을 동시에 고려한 국내 연구의 수가 극히 적은 상황이다.

한편, 인간은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 잘 알려져 있다. 때문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필수적인 사회적 능력의 함양이 중요하다. 사회적 능력은 개인이 속한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27], 적응행동과 사회적 기술로 구성된다[28]. 또, 사회적 기술은 사회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특정 행동들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동

기술들로 정의된다[28]. 사회적 기술의 함양은 인간 전 생애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학령기 자녀에게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 첫째, 학령기는 아동이 한정된 사회에서 벗어나 학교라는 더 넓은 사회로 나가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기술, 사회성, 가치관을 갖추고 독립된 개체로 발전하는 시기[5]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적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는 아동은 학업 우수, 사회적 유능성 및 적응 등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29-31], 학령기 또래 관계의 어려움은 향후 학업 부진, 학교 부적응,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성인기 정신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5,31].

사회적 기술과 다른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로, 부모-자녀 간 긍정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사회적 기술이나 긍정적인 또래 관계에서의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32-36]. 둘째로, 긍정적 자아개념이나 자존감은 사회적 기술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는다[5,37]. 자존감이나 긍정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사회적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과[38-43] 사회적 기술의 적절한 사용이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44,45]의 공존이 두 변인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지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자녀의 사회적 기술에 연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연구 대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아동을 둔 아버지로 결정했는데, 그 근거는 아래의 두 가지와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 사회적 기술이 특히 중요한 시기임[46]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술과 연관이 있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47,48]. 현재까지 부모와 자녀의 자존감,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주로 7세 이하의 영·유아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15,23-26]. 둘째,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29] 어머니-자녀 상호작용과는 상이한 아버지-자녀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자존감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은 어머니의 영향과는 다른 독특한 면이 있으며 몇몇 변인의 효과 크기는 어머니의 것보다 더 크다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15,19,26,29,49-59] 아버지-자녀 상호작용과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의 상이한 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자녀의 자존감 및 사회적 기술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기에[21,23-25,49]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모의 자존감이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존감의 순차 매개효과를 통해서 자녀의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여기에서, 자녀의 자존감과 사회적 기술은 아버지가 지각한 자녀의 자존감 및 사회적 기술을 의미함). 이를 통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할 때나 학령기 자녀의 개인 상담 및 부모 상담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중요성의 근거자료로써 제공하려 한다.

1.2 연구 문제

아버지의 자존감과 자녀의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존감은 순차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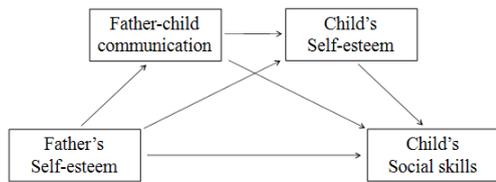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Serial dual mediation model).

2. 본론

2.1 연구방법

2.1.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2023년 4월 30일부터 2023년 5월 20일 까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251부의 응답지를 얻었고, 설문 대상자가 아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7부를 제외하여 총 244명의 설문지를 통계분석에 사용했다.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43.21세(SD=22.51)이었고, 연령분포는 20대 2명(0.8%), 30대 46명(18.9%), 40대 178명(72.9%), 50대 17명(7.0%), 60대 1명(0.4%)였다. 종교는 기독교 65명(26.6%), 천주교 25명(10.3%), 불교 23명(9.4%), 무교 131명(53.7%)이었다. 또, 자녀의 학년은 4학년 91명(37.3%), 5학년 77명(31.6%), 6학년 76명(31.1%)이었으며 자녀의 성별은 남 150명(61.5%), 여 94명(38.5%)이었다.

2.2 측정도구

2.2.1 자존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 가지 자존감 척도는 모두 Rosenberg가 1965년도에 개발한 척도[60]를 토대로 한다. 아버지의 자존감 척도는 이은지가 수정한 척도[61]를 이자영 등이 8번 문항을 수정·보완하여[62,63] 사용했고, 아버지가 지각한 자녀의 자존감 척도는 박재우가 수정·보완한 척도[64]를 사용했다. 두 척도 모두 긍정 문항 5문항(1,2,4,6,7문항)과 부정 문항 5문항(3,5,8,9,10문항: 역채점하여 사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총 10문항). 각각의 척도는 리커트 4점 척도와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가 각각 .864와 .857로 나타났다.

2.2.2 부모-자녀 의사소통

본 연구에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측정 도구로 Barnes와 Olson이 개발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65]를 김윤희가 번안한 척도[66]를 사용했다. 이 도구는 2 개의 하위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개방형 의사소통(홀수 항목 10 문항)과 문제형 의사소통(짝수 항목 10 문항)이다. 문제형 의사소통은 역채점하여 사용하며[65] 총 20문항,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긍정적·개방적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가 .919로 나타났다.

2.2.3 사회적 기술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Elliott와 Gresham이 고안한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 (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를 김향지[28]와 한은선[30]이 수정·번안한 척도를 문성원[67]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은 협동(6 문항), 자기주장(8 문항), 책임감(5 문항), 자기통제(6 문항)이며 총 25문항이다. 리커트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기술을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78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0과 Hayes[68]의 SPSS Process macro 4.2를 사용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했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각 변인들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했다. 둘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했다. 셋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 및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넷째, 아버지의 자존감과 자녀의 사회적 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자녀의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존감의 순차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68]의 Process macro 6번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했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표본 수 5,000개 및 95% 신뢰구간) 방법을 사용해 검증했다. 각각의 매개효과들은 해당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68].

2.4 분석결과

2.4.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검증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했고 그 결과는 아래 Table 1과 같다. 왜도 및 첨도의 절대값들이 모두 2와 7보다 작으므로(최대 .86 및 .43)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VIF 및 Tolerance값과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VIF값의 최대값은 2.9, Tolerance값의 최소값은 .35로 각각 10 미만 및 .100 이상의 값을 가져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주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1), 각각의 변인들이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아버지-자녀 의사소통과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coefficient(r)

	Mean	S.D	Skewness	Kurtosis	1.	2.	3.	4.
1.	3.25	.50	-.69	-.19	1.000	.746***	.682***	.521***
2.	3.85	.61	-.59	-.14		1.000	.738***	.624***
3.	3.88	.61	-.86	-.17			1.000	.598***
4.	1.29	.30	-.60	.43				1.000

1: Father's self-esteem, 2: Father-child communication, 3: Child's self-esteem, 4: Child's social skills, *** $p < .001$

아버지의 자존감 및 자녀의 자존감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r \geq .70$)를 보였고, 그 외의 모든 변인들은 보통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2.4.2 매개분석

아버지의 자존감과 자녀의 사회적 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존감의 순차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아래 Table 2에 제시했다.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존감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자존감은 자녀의 사회적 기술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 = .31, p < .001$)을 미쳤고, 그 설명량은 27%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자존감은 아버지-자녀의 의사소통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 = .91, p < .001$)을 미쳤고, 56%의 설명량을 보였다. 자녀의 자존감에 아버지의 자존감과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이 각각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을 때, 두 변인은 자녀의 자존감에 각각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 = .36, p < .001$ 및 $B = .52, p < .001$)을 미쳤고 그 설명량은 58%로 나타났다. 자녀의 사회적 기술에 아버지의 자존감,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그리고 자녀의 자존감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했을 때, 아버지의 자존감이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B = .02, p > .05$)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존감이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했고($B = .19, p < .001$ 및 $B = .14, p < .001$) 이 모형의 설명량은 43%였다.

각 경로별 비표준화계수와 유의도를 표시한 그림은 Fig. 2와 같다.

Table 2. The result of direct effect verification.

Ind.	Dep.	B	β	SE	t	95% CI	
						LL	UL
1.	4.	.31	.52	.03	9.50***	.25	.38
Model sum.		R ² = .27, F = 90.16**					
1.	2.	.91	.75	.05	17.45***	.80	1.01
Model sum.		R ² = .56, F = 304.43**					
1.	3.	.36	.30	.08	4.74***	.21	.51
2.		.52	.52	.06	8.28***	.40	.64
Model sum.		R ² = .58, F = 168.95**					
1.	4.	.02	.04	.05	.51	-.07	.11
2.		.19	.38	.04	4.60***	.11	.27
3.		.14	.29	.04	3.84***	.07	.22
Model sum.		R ² = .43, F = 60.70**					

1-4: Same as Table 1, Ind: Independent variable, Dep: Dependent variable, Model sum: Model summary,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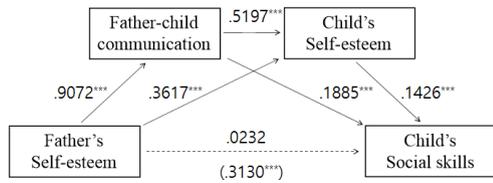


Fig. 2. Serial dual mediation model and un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In parentheses, the direct effect that controlled indirect effects).

아버지의 자존감과 자녀의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존감의 순차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해 검증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했다. 그 결과, 아버지의 자존감(X)이 아버지-자녀 의사소통(M1)을 통해 자녀의 사회적 기술(Y)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B=.17$, CI{.09,.24}). 다음으로 아버지의 자존감(X)이 자녀의 자존감(M2)을 통해 자녀의 사회적 기술(Y)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녀의 자존감의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B=.05$, CI{.02,.09}). 또 아버지의 자존감(X)과 자녀의 사회적 기술(Y)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M1)과 자녀의 자존감(M2)의 순차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B=.07$, CI{.03,.11}). 따라서 아버지의 자존감과 자녀의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존감의 매개경로의 유의성이 확인됐으며, 또 아버지-자녀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존감의 순차 매개경로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그리고, 총 효과는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B=.31$, CI{.25,.38}). 한편, 아버지의 자존감(X)과 자녀의 사회적 기술 간(Y)의 관계에 두 매개변인(M1, M2)을 포함시켰을 때의 아버지의 자존감이 자녀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02$, CI{-0.07,.11}). 이와 반대로, 두 매개변인(M1, M2)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의 아버지의 자존감(X)이 자녀의 사회적 기술(Y)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므로($B=.31$, CI{.25,.38}) 매개변인인 아버지-자녀 상호작용과 자녀의 자존감이 아버지의 자존감과 자녀의 사회적 기술의 관계를 완전매개함이 확인되었다.

Table 3. The result of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Pathway	Effect	SE	t	95 % CI	
				LL	UL
Indirect eff.	X → M1 → Y	.17	.04	.09	.24
	X → M2 → Y	.05	.02	.02	.09
	X → M1 → M2 → Y	.07	.02	.03	.11
	Total Ind.	.29	.05	.20	.38
Direct effect	.02	.05	.51	-.07	.11
Total effect	.31	.03	9.50***	.25	.38

X: Father's self-esteem, M1: Father-child communication, M2: Child's self-esteem, Y: Child's social skills, Indirect eff: Indirect effect, *** $p < .001$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으로 아버지의 자존감이 아버지-자녀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존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자녀의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네 개의 변인들은 모두 서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특히 아버지-자녀 의사소통과 아버지의 자존감 및 자녀의 자존감은 각각 높은 수준(0.7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아버지의 자존감과 자녀의 사회적 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존감의 각각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아버지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으로 되며 이는 결국 자녀의 사회적 기술 함양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또, 아버지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존감도 높게 되고 이는 자녀가 사회적 기술을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부모의 자존감이 부모-자녀 의사소통[2,4,11]이나 자녀의 자존감[19-25]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높은 자존감이 적절한 사회적 기술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선행연구[38-43] 일치한다.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이나 높은 자녀의 자존감이 자녀의 사회적 기술의 적절한 사용을 가능하게 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존감이 아버지의 자존감과 자녀의 사회적 기술의 관계를 순차매개 및 완전매개 함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자녀의 사회적 기술에 아버지의 자존감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아버지-자녀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존감을 순차적으로 통해야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자녀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존감의 효과 크기를 각각 비교한 결과, 아버지-자녀 의사소통($\beta=.19, \beta=.38, p<.001$)이 자녀의 자존감($\beta=.14, \beta=.29, p<.001$)보다 컸다. 이를 통해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존감보다 자녀의 사회적 기술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자녀 자신의 자존감 수준보다도 그의 사회적 기술 발달에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논문에서 증명한 매개모형에서는 아버지의 자존감이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자존감으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자존감이 자녀에게 전수되며 이 과정에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이 매개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의 자존감이 자녀의 자존감으로 이어지며[19- 25]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매개효과를 보고한[26,27] 선행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결과는 사티어의 가족치료에서 설명하는 부모-자녀 자존감 전수 과정[2,11]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자녀의 자존감에 대한 아버지의 자존감 및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의 효과 크기를 각각 비교한 결과, 아버지의 자존감($\beta=.36, \beta=.30, p<.001$)보다 아버지-자녀 의사소통($\beta=.52, \beta=.52, p<.001$)이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자녀의 자존감 형성에는 아버지의 자존감 그 자체보다 아버지와 자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더 중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지각한 자녀의 자존감 및 사회적 기술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실제 자녀의 자존감과 사회적 기술 측정치와는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의 자존감 및 사회적 기술의 측정에 아동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정확한 측정치를 얻도록 해야겠다. 둘째, 본 연구 모델의 설명력이 .43로 나타나, 자녀의 사회적 기술을 강력하게 설명하는 다른 연구모형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셋째, 연구 표본 수가 적고 한 시점에서 측정한 횡단연구 결과이므로,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둔 아버지 전체에 대한 연구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효과 크기가 큰 변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첫째, 자존감의 아버지-자녀 전수 과정을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이 매개함을 경

험적으로 보여줬다. 둘째, 아버지의 자존감이 자녀의 사회적 기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혔다. 아버지의 자존감은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이나 자녀의 자존감을 거치지 않고서는 자녀의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셋째, 자녀의 사회적 기술 발달에 자녀의 자존감보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더 큰 영향을 미침을 보여줬다. 넷째, 어머니 대상의 연구보다 그 수가 부족한 아버지 대상의 연구 결과를 제공했다. 이런 의의로 인하여, 자녀의 자존감과 사회적 기술 발달에 대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1] S. M. Kwon, Psychology of Human Relationships, p.560, Hakjisa, 2018, pp.321-322.
- [2] Virginia Satir, S. H. Hong, A. H. Lim, Conjoint Family Therapy, p.568, Nanoombook, 2006, pp.89,135,255.
- [3] Bruno Hourst, H. Y. Kim, Helping my child develop self -esteem (J'aide mon enfant à développer son estime de soi), p.292, Thoughts of a Tree Publishing Co., 2020, pp.9.
- [4] Virginia Satir, Y. R. Kang, Family Healing, p.336, purnyugae, 2012, pp.38-40,98-110.
- [5] H. J. Lee, Y. S. Kim, D. S. Moon, H. W. Kim, H. J. Kim, When Children Meet the Society(아이들이 사회를 만날 때), p.232, Geulhangari, 2021, pp.19,131-145.
- [6] O, B. Jung, Child Development, p.688, Hakjisa, 2018, pp.535-539.
- [7] Paul H. Mussen, John J. Conger, Jerome Kagan,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p.580, Happer & Row Publishers, 1979, pp.344-345.
- [8] Charles P. Smith,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 Coopersmith", *American Scientist*, Vol.56, No.3, pp.323A, Oct. 1968.
- [9] Kimberlee Roth, S. K. Kim, C, U. Choi, Surviving a Borderline Parent: How to Heal Tour Childhood Wounds & Build Trust, Boundaries, and Self-Esteem, p.300, Parkyoungstory, 2019, pp.270-272.
- [10] T. H. Ha, "Study on the Relations among Self -Esteem, Communication and School Satisfa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4, No.1, pp.93-104, Mar 2010. UCI: G704-SER000009448.2010.24.1.005
- [11] Y. A. Kim, Satir's Iceberg Communication Skills, p.390, Kimyoungae Family Counseling Lab., 2012, pp.91-123.
- [12] Virginia Satir, K. B. Na, The New Peoplemaking,

- p.336, Changzomunhaw, 1999, pp.17-60.
- [13] J. R. Han, G. H. Heo, "The Relationships of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Offsprings' Self-esteem, Self-disclosure, Locus of Control,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Vol.49, No.5, pp.202-227, Oct. 2005.
UCI: G704-000203.2005.49.5.003
- [14] I. O. Park, J. H. Lee,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 Communication with Parents on Self-Esteem of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Juveniles",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22, No.1, pp.21-33, Mar. 2011.
UCI: G704-001337.2011.22.1.010
- [15] Y. S. Lee, *Effects of Social Students' Parents-Child Communication Pattern by Individual Factor on Self-Esteem*, Master's thesis, Kyungwoon Univ., Gyeongsang, Korea, pp.52-53, 2005.
- [16] Y. R. Kim, "Investigat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Major Factors Influencing Father-child Communication Openn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1, No.1, pp.1417-1430, Feb. 2020.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1.1.104>
- [17] Y. A. Kim, *Communication Skills*, p.311, Kimyoung-ae Family Counseling Lab., 2008, pp.3-30.
- [18] Jennifer Edmondson, Lori Grote, Lisa Haskell, Andra Matthews, Mikeon white, "Adolescent Self-Esteem: Is There a Correlation With Maternal Self-Esteem?", *Citations*, Vol.3, pp.1-8, 2006.
- [19] Viktor Gecas, James M. Calonico, Darwin L. Thomas, "The development of self-concept in the child: Mirror theory versus model theor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92, No.1, pp.67-76, Feb. 1974.
- [20] Openshaw, D. Kim, Darwin L. Thomas, Boyd C. Rollins, "Parental influences of adolescent self-esteem",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4, No.3, pp.259-274, Sep. 1984.
DOI: <https://dx.doi.org/10.1177/0272431684043010>
- [21] J. W. Han, Hanna. Lee, "The effect of parental self-esteem on children's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attention: through the child's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1, pp.628-636, Nov 2017.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7.18.11.628>
- [22] S. H. Lee, H. E. Chung,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elf-Esteem in You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Focusing on Family Interaction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41, No.5, pp.73-83, Oct. 2020.
DOI: <https://dx.doi.org/10.5723/kjcs.2020.41.5.73>
- [23] D. J. Shin, H. M. Choi, "Shin, D. J., and H. M. Choi. "The Relations among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with Marital Partner, Mother's Self -Esteem, and Child's Self-Esteem",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5, No.1, pp.301-324, Feb 2011.
- [24] D. J. Shin, "The Relations Among Mother's Attachment Representations, Mother's Self-Esteem, and Child's Self-Esteem",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6, No.1, pp.305-324, Feb. 2012.
- [25] Y. S. Hwang, "The Effect of Mother's Self-Esteem in Children's Self-Esteem: Mediating Effect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134, No.1, pp.107-123, May 2022.
DOI: <https://doi.org/10.37918/kce.2022.5.134.107>
- [26] K. E. Park, *The Mediated Effects of Communic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Self-Esteem and Child*, Master's thesis, Sunchon National Univ., Jeolla, Korea, pp.47-57, 2016.
- [27] K. G. Hong, J. S. Oh, Y. J. Kim, *Harmony Leader -ship II, Enhancing Social & Communication Abilities in Children*, p.332, Hong Counseling Center, 2017, pp.12-23.
- [28] H. J. Kim, "A Validation Study of SSRS: For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in Elementary School", *The Korea Society of Special Education*, Vol.17, No.1, pp.121-155, Mar. 1996.
- [29] M. G. Kwon, H. J. Moon, H. K. Kwon, M. Y. Sung, Y. R. Shin, *Child Development*, p.412, Changjisa, 2012, pp.336-353.
- [30] E. S. Han, *Effects of Social Skills Training in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Master's thesis, Sung Kyun Kwan Univ., Seoul, Korea, pp.9-11, 1999.
- [31] Bullock Janis,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Young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Vol.37, No.1, pp.47-54, Jan. 1988.
- [32] C. M. Lee,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child communic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mediating effect of well-be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11, pp.793-806, Jun. 2021.
- [33] Y. H. Kim, J. M. Bae,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ents' Verbal Control types Perceived by Children, the Self-esteem and Prosocial Behavior of Childre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Studies*, Vol.13, No.1, pp.67-86, Jun. 2006.
- [34] J. E. Park,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s and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Ajou Univ., Gyeonggi, Korea, pp.31-37, 2010.
- [35] J. S. Kim, C. S. Heo,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ommunication Level and the Self-Esteem of their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6, No.4, pp.1261-1280, Dec. 2005.
UCI: G704-001281.2005.6.4.002
- [36] S. G. Yeoum, J. H. Lee, "The Influences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 for the Adolescent”,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40, No.3, pp.1-11, Aug. 2014.
DOI: <http://dx.doi.org/10.22900/kphr.2014.40.3.001>
- [37] S. J. Kim, *The Effects of Tealife Education Program on Children's Self-esteem and Sociality*, Ph.D dissertaion, Mokpo National Univ., Jeollanam, Korea, pp.64-74, 2019.
- [38] N. J. Park, J. Y. Koh,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elf-Concept and Social Intelligence”, *Journal of Young Child Studies*, Vol.9, pp.193-218, Dec. 2006.
- [39] S. M. Lee, *A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bility, Self-Esteem, Language Ability and Resilience in Young Children*, Master's thesis, Chung-Ang Univ., Seoul, Korea, pp.87-100, 2017.
- [40] S. M. Jung, *The Effect of Social Supports and Self Concept Perceived by Children on the Social Competence*,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 Seoul, Korea, pp.40-46, 2005.
- [41] S. A. Chi, S. H. Kim,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Self-esteem, Peer interaction, and Playfulnes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5, No.4, pp.111-127, Aug. 2010.
UCI: G704-000666.2010.15.4.011
- [42] S. H. Nam,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ociality of school sports club teacher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Vol.24, No.3, pp.217-227, Jun. 2019.
DOI: <http://dx.doi.org/10.15831/JKSSPE.2019.24.3.217>
- [43] E. J. Yu, *The Relationship between Pro-social Behavior and Self-esteem of Infants*,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cheongbuk, Korea, pp.55-61, 2010.
- [44] S. B. Choi, *A Relationship among Young Children's Sense of Self-Esteem, Pro-sociability, Daily Stress, and Creativity*, Master's thesis, Chung-Ang Univ., Seoul, Korea, pp.87-102, 2019.
- [45] J. H. Ba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Self-Esteem, Social Intelligence,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 Daegu, Korea, pp.35-39, 2012.
- [46] S. S. Lee, H. G. Kim, “Case Study on the Self-esteem and Social Chang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Reading Programs Using Picture Books”, *The Journal of Education Studies*, Vol.57, No.4, pp.50-74, Aug. 2020.
- [47] S. H. Lee, Y. Lee, “Review of the Literature on Social Studie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18, No.3, pp.25-54, Sep. 2016.
DOI: <http://dx.doi.org/10.21075/kacs.n.2016.18.3.25>
- [48] M. R. Kim, K. W. Nam, “Exploring Two-year-old Toddlers' Social Perspective Taking and Prosocial Experiences in Nature-bounded Outdoor Play”,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Vol.20, No.6, pp.309-334, Dec. 2016.
UCI: G704-000814.2016.20.6.014
- [49] K. H. Do, “A study of Father related Variables Influencing Children'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17, No.5, pp.861-872, Oct. 2008.
UCI: G704-001335.2008.17.5.005
- [50] G. T. Min, *Father's percep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reading activities of infant children*, Master's thesis, A-Jou Univ., Gyeonggi, Korea, pp.10-19, 2014.
- [51] J. W.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attachment to Their Parents, Father Involvement,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 Seoul, Korea, pp.1-13,31-34, 2012.
- [52] S. H. Park,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family system and the child's self-esteem perceived by the child*, Master's thesis, Yonsei Univ., Seoul, Korea, pp.42-45,56-58, 2003.
- [53] U. J. Sung, H. J. Lee, “Effect of Parents' Communication Methods on the Formation of Self-esteem in the Childre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2, No.6, pp.643-656, Dec. 2021.
DOI: <https://doi.org/10.22143/HSS21.12.6.46>
- [54] M. H. Cho, *The Effects of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on the Adolescent's Self-Esteem, College Life Adjust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Hanyang Univ., Seoul, Korea, pp.29-38, 2007.
- [55] E. H. 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and mothers' participation time and types in play, children's playfulness and peer play interaction*, Master's thesis, Yonsei Univ., Seoul, Korea, pp.4-6,44-53, 2019.
- [56] Judith H. Langlois, A. Chris Downs, “Mothers, Fathers, and Peers as Socialization Agents of Sex-Typed Play Behavior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Vol.51, No.4, pp.1237-1247, Dec. 1980.
DOI: <http://doi.org/10.2307/1129566>
- [57] Michael E. Lamb, *The role of the father the Child Development*, p.552, John Wiley & Sons, 2004, pp.1-12, 307-325.
- [58] Laurence D. Steinberg, “Transformations in family relations at puberty”,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7, No.6, pp.833-840, Jan. 1981.
DOI: <http://doi.org/10.1037/0012-1649.17.6.833>
- [59] H. J. Lee, K. W. Kim,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dolescents Self-Esteem, and Social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9, No.3, pp.283-295, Aug. 2000.
- [60] Rosenberg Morris,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340,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pp.16-38.
- [61] E. J. Lee, *Application of Circumplex Model for*

Exploring Method Effect and Factor Structure of Rosenberg's Self-Esteem Scale, Master's thesis, Konkuk Univ., Seoul, Korea, pp.15-24,104-108, 2023.

- [62] J. Y. Lee, S. K. Nam, M. K. Lee, J. H. Lee, S. M. Lee, "Rosenberg' Self-Esteem Scale: Analysis of Item-Level Valid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1, No.1, pp.173-189, Feb. 2009. UCI: G704-000523.2009.21.1.013
- [63] J. Y. Lee, S. K. Nam, B. Y. Choi, J. H. Lee, Y. M. Park, S. M. Lee, "Errors in Item Translation of Psychological Assessment by Cultural discrepancy: Revising 8th Item of Rosenberg's Self-Esteem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0, No.3, pp.1345-1358, Sep. 2009. UCI: G704-001281.2009.10.3.027
- [64] J. W. Park, "The Effects of Alpha Mom-Beta Mom Parenting Styles of Mother on the Problem Behaviors of Their Children: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herapist*, Vol.7, No.3, pp.431-445, Dec. 2015.
- [65] Howard L. Barnes, David H. Olson,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Vol.56, No.2, pp.438-447, Apr. 1985.
- [66] Y. H. Kim,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couple relationship,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amily functioning*, Ph.D dissertation, Sook Myung Women's Univ., Seoul, Korea, pp.19-22,38, 1990.
- [67] S. W. Moon, "Assessing Social Skills and Problem Behaviors in Korean children: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Social Skill Rating System for Children (K-SSRS-P: Elementary Level)",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32, No.3, pp.727-750, Oct. 2013. DOI: <http://doi.org/10.15842/kicp.2013.32.3.014>
- [68] Andrew F. Hay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p.732, The Guilford Press, 2022.

윤 성 민(Sung-Min Yoon)

[정회원]



- 2000년 5월 : 미, 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 심리학대학원 상담심리학과 (Master of Arts)
- 2011년 8월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문학박사)
- 2011년 5월 ~ 2011년 12월 : 한국발명진흥회 영재상담전문위원
- 2012년 9월 ~ 현재 :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가족 · 부부상담, 긍정심리학, 부모-자녀관계

김 정 현(Jung-Hyun Kim)

[정회원]



- 2020년 8월 ~ 현재 :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학사과정 재학중

<관심분야>

청소년상담, 학교상담, 부모-자녀관계